

광주·전남 장애인육상 ‘저력 입증’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에서 전남·광주 선수단이 트랙과 필드를 뜨겁게 달렸다.

청각·시각·지적장애 선수들이 각자의 한계를 넘어 굵직한 성과를

쌓으며 저력을 입증했다.

강수빈(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은 1일 열린 여자부 800m T20(동호인부)에서 2분 39초 45로 결승선을 통과,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앞서 높이뛰기에서도 우승해 2관왕에 오르며 차세대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강수빈은 “메달을 따서 너무 좋았다. 경기 직전에 감기몸살로 아팠는데, 링겔 맞고 경기에 출전했다”며 “메달을 목표로 경기를 준비했고, 다들 응원해주서 부담감은 덜했다”고 소감을 밝히 강한 멘탈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6학 년때부터 취미로 시작해서 지금은 선수가 된지 5년 차인 그는 육상의 매력은 ‘도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메달에 도전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며 “남은 경기 (T20 200m)에서 1등을 받고 싶고, 다

강수빈 여자부 800m T20 대회新 금메달…높이뛰기 등 2관왕
남자부 황상준 DB 5000m·1500m 2연패 “국가대표 되고 싶다”
시각장애 김정하 5000m 금 등 메달 3개…“마라톤 한국신 도전”

음 목표는 국가대표라며 각오와 목표를 밝혔다. 남자부에선 DB(선수부)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이 5000m와 1500m를 연달아 제패해 각 종목 2연패를 달성했다.

800m에서도 2분 09초 39로 은메달을 보태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중·장거리 흐름을 만들었다.

황상준은 “잘하고 싶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컸지만, 매일 정신수련을 하고 피나도록 열심히 달렸다”고 금메달의 비결을 전했다.

축구선수 출신인 황상준은 종목 전환 2년 만에 트랙을 지배했다.

그는 “전남 도민체전 이후 지도자의 권유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달릴 때 비치는 햇빛이 좋아 계속 뛰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목표는 국가대표이다. 내년 4관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각장애 김정하(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5000m 금메달에 1500m·800m 은메달을 더하며 장거리 강자의 면모를 확인했다.

그는 3일 치른 T12 1500m 3관왕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김정하는 “컨디션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이번 경기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며 “마라톤이 주종목이다 보니 아직 800m나 1500m에서 스피드가 많이 아쉽다. 남은 마라톤 10km경기는 한국 신기록을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정하는 이날 5년째 함께 달리고 있는 신윤진 가이드러너와 트랙에 섰다.

시각장애 등급 특성상 호흡 맞춘은 승부를 가른다.

T11은 전맹으로 안내 착용과 가이드러너 의무, T12는 시야·각도 제한으로 가이드 선택 가능(함께 뛸 경우 안내 착용), T13은 약시로 단독 경기가 원칙이다.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짧은 끈을 잡고 함께 달리는 만큼 두 사람의 호흡은 매우 중요하다.

김정하의 가이드러너 신윤진은 28년째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아마추어 선수이다.

그는 “주에 한 번씩 훈련을 같이 진행했고, 2019년부터 김정하 선수와 호흡을 맞춰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걸 알기에 오늘의 은메달이 아쉽긴하다. 김정하 선수 목표가 곧 제



3일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남자부 T12 1500m 은메달을 획득한 김정하(왼쪽)와 가이드러너 신윤진.

목표이기에 앞으로 남은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하는 국내 시각장애인 마라톤(폴코스) 최고 기록 보유자로 향후 국제무대 성적에도 기대가 모인다.

김정하는 “남은 10km까지 한국신기록을 세우겠

다”며 “패럴림픽 마라톤 폴코스를 준비 중이다. 또 준비하고 있는 내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기록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같은 1500m경기에서 광주의 문인성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부산 글·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kwanju.co.kr

손흥민 ‘1골 1도움’…우승 꿈 순항

LAFC, 오스틴에 4-1 승

MLS 플레이오프 8강 진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가 손흥민의 ‘1골 1도움’ 맹활약에 힘입어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 2차전 원정 경기에 드니 부앙가와 공격진을 이휘 선발 출전, 88분을 뛰며 팀의 4-1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LAFC는 3전 2승제로 치러지는 1라운드에서 두 경기를 먼저 이겨 8강 진출 티켓을 따냈다.

LAFC는 지난달 30일 오스틴과 1라운드 1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첫 승을 거뒀다.

당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으나 후반 34분 네이션 오르다스의 득점에 관여하며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은 전반에만 드니 부앙가와 2골을 합작하며 일찍 승리의 물꼬를 뒀다.

선제골은 손흥민이 책임졌다.

전반 21분 중원에서 부앙가가 찰러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직격 공을 몰고 올라가 헛다리 짚기로 수비수를 제친 뒤 원발솟으로 골대 오른쪽 구석에 정확하게 찼다.

손흥민은 4분 뒤에는 부앙가의 추가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페널티박스 왼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부앙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가 침착하게 공을 잡아둔 뒤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부앙가는 전반 44분에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더욱 벌였다.

오스틴은 전반 추가시간 6분 페널티 킥으로 만회골을 뽑아내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지만, 이후 득점은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27분,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에 막혀 흐른 공을 CJ 포드리가 재차 밀어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돼 아쉬움을 삼켰다.

3-1로 앞선 후반 43분 손흥민과 교체 투입된 제라미 에보비스가 추가시간 3분에 쐐기골을 터뜨리며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MLS는 정규리그에 이어 동·서부 콘퍼런스 각 8개 팀이 16강에 올라 PO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1라운드와 달리 모두 단판 승부다.

LAFC는 8강에서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2위로 마무리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맞붙는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는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25년을 뛴 ‘독일 축구 레전드’ 토마스 뮐러가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FC의 제라미 에보비스(17)가 2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MLS 축구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후반전 오스틴 FC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손흥민(7) 등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무릎 부상’ 조규성, 20개월만에 태극마크

홍명보 감독, A매치 명단 발표…14일 볼리비아·18일 가나와 격돌

조규성(27·미트윌란)이 무릎 부상에서 벗어나 20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대한축구협회가 3일 11월 A매치에 나설 홍명보호 27명의 엔트리를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대결한다. 이어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를 상대로 시험무대를 갖는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조규성이다.

조규성은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이 열린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24년 7월 이후 첫 발탁이기도 하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선수 최초의 ‘멀티골’ 주인공이 됐지만 지난해 5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그라운드를 이탈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2024-2025시즌을 건너뛴 그는 지난 8월 17일 팀 복귀전을 치른 뒤 9월 올보르BK와의 덴마크컵에서 1년 4개월 만에 골맛을 봤다. 이어 리그에서도 3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 직접 조규성을 점검한 홍명보 감독은 “앞서 코치진이 몇 차례에 걸쳐 몸상태를 체크했다. 현재 몸상태는 대표팀 소집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 핵심 자

원들이 그대로 명단에 포함됐고 지난 10월 14일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A매치 2호골을 장식한 엄지성(스완지 시티)도 역시 풀업을 받았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양민혁(포츠머스)은 8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다.

또 군에서 전역한 이동경(울산)과 함께 박진섭·김진규(이상 전북), 이명재·김문환(이상 대전) 등 K리그들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에 자리한 ‘홍명보호’는 이번 소집에서 포트2 수성을 목표로 한다.

◇축구대표팀 11월 A매치 2연전 명단(27명)

▲골키퍼(GK) = 김승규(FC도쿄), 조원우(울산 HD), 송범근(전북 현대) ▲수비수(DF) =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이한범(미트윌란), 박진섭(전북 현대), 김태현(가시마 엔트러스), 이명재·김문환(이상 대전하나시킴),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 ▲미드필드(MF) = 원두재(코르파칸), 백승호(버밍엄 시티),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 김진규(전북 현대), 양민혁(포츠머스), 엄지성(스완지시티), 이동경(울산 HD), 권혁규(FC낭트) ▲공격수(FW) = 오현규(KRC 헝크), 손흥민(LAFC), 조규성(미트윌란)

/김여울 기자 wool@

삼성, 박진만 감독과 총액 23억 재계약

2+1년 계약금 5억·연봉 5억 등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박진만(사진 가운데) 감독과 재계약했다.

삼성 구단은 3일 “박진만 감독과 계약 기간 2+1년, 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연간 인센티브 1억원을 합쳐 최대총액 23억원의 조건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감독 대행으로 사자 군단 지휘봉을 잡은 박진만 감독은 그해 시즌 종료 후 정식 감독으로 취임했다.

2023년엔 61승 1무 82패, 팀 승률 0.427로 8위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예상을 뛰어넘어 정규시즌 2위에 오른 뒤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올 시즌에도 정규시즌 74승 2무 68패, 승률 0.524의 성적으로 삼성을 정규시즌 4위로 이끌었고 가을 야구에선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뒤 플레이오프까지 11경기를 치렀다.

한화 이글스와 플레이오프에선 5차전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삼성 구단은 “박진만 감독은 소통 리더십과 팀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야수진 세대교체를 이끌었고, 리그 최정상급 수비력을 만들었다”며 “지속 가능한 상위권 전력을 구축한 점에 주목해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박진만 감독은 일본 오기나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 선수단을 지휘할 예정이다. 삼성 선수단은 지난 달 31일 일본 오기나와 온나손 야가마 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연합뉴스